

한옥형 아파트 계획을 위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umer Awareness for Hanok Style Apartment Plan

Author 신영숙 Shin, Young-Sook / 정회원, 건국대학교 생활과학과 교수, 이학박사
조명은 Cho, Myung-Eun / 정회원, 건국대학교 생활과학과 강의 교수, 이학박사

Abstract Nowadays the increasing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have been required more diversified housing environment. And it also focused on concern about Korean traditional housing style, Hanok. There were several studies applied to traditional style design on Hanok, but few on Hanokstyle apartment.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consumer awareness on Hanok style apartment plan and its design details. The research were done by questionnaire methode. It were distributed to 130 city and rural residents. 109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χ^2 -test, F-test, ANOVA, t-test, and factor analysis.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70% of respondents revealed their intention to live in Hanokstyle housing if it has improved conveniency and lowered maintenance expenses. Second, they preferred under 5 story row house type or apartment type Hanok located in suburbs. Third, Hanokstyle apartment characteristics were expected to have visual openness, good view, traditional decor, functional, rhythmical and transitional space. And also they wanted traditional Madang(inner garden) and Maru(a wooden floor room) located next to living room.

Keywords 한옥, 한옥형 아파트, 소비자 인식
Hanok, Hanok Style Apartment, Consumer Awarenes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전통적으로 한옥은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에 의해 남방형의 마루와 북방형의 구들이 겹하여 형성되어서 냉난방장치가 한 주택 내에 구성되어 있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고려시대 이래로 전형적 평면이 맞추어진 이후 일견 서구의 건축양식 발달과 견주어 볼 때 거의 변화가 없는 듯 보이나 17세기에 풋마루가 발달하는 등 약간씩의 진화를 하면서 한민족 정서의 근저에 그리움으로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근대화와 함께 그 진화가 멈추고 온통 서구식 건축양식으로 우리 주변을 채우고 있는 요즈음 건강한 주택에 대한 관심과 회일적 아파트 공간에 대한 희의로 인해 전통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감성과 기능을 담은 한옥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한국적인 스타일에 대한 보존과 발전차원에서

2007년에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한국 고유 문화의 6대 분야를 브랜드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의 한 부분인 한옥도 21세기 세계인의 참살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한옥 마을 조성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현황을 보면 1970년대 이후 아파트 블이 일어나면서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넘어서고 있고 매년 공급되는 주택의 80% 이상이 아파트 건설이다. 아파트가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으나 획일적인 평면구성으로 인해 자연히 사람들의 생활 양식도 획일화하여 그에 따른 과도한 경쟁의식, 가정 내부 또는 단지 내부로만 향해 있는 내향적 시각과 자폐의식, 도시와 가로의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거대한 구조물의 난립으로 야기되는 도시경관 문제와 환경 문제 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택 보급률도 2005년을 기준으로 105% 이상으로 높아졌으므로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인 주택정책을 펼칠 때가 되었다. 또한 사회변화와 함께 더욱 각 개인의 생활양식은 개성적으로 변화되어 기호와 선호 면에서 다양한 생활양식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함께 좀 더 다양한 아파트 유형에 대한 요구와 시

*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도들이 행해지고 있다.

토지주택 공사에서는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아파트에 전통 한옥요소를 적용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올해 안에 적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개발연구원 역시 중·종 저밀형 공동주택의 수요 중 일부를 한옥으로 대체하여 한옥건축에 대한 문화적 자부심 고취 및 일반인의 의식수준을 고양시키고자 한옥건축의 산업화를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 북촌이 있고 혜화동 로터리 인근의 한옥 동사무소가 있으며, 경복궁 서편에도 새로운 감각의 한옥들이 늘고 있다. 아직은 상업적인 공간들이 많이 있지만 점차 주택은 물론 갤러리나 사무공간으로도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서 본 연구는 획일적인 아파트 공간을 탈피하여 우리의 전통적 정서를 함양하고 앞으로 더욱 추진되어야 할 친환경적인 생활양식과 부합되는 한옥형 아파트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자 하는 일차적 연구로서 건축가나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한옥형아파트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를 탐색하여 계획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한옥형 아파트 개발을 위한 시초적인 연구로 한옥형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를 통해 한옥형 아파트의 실현가능성을 예측해 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 범위는 아파트 실내공간으로 제한하였고 연구 내용은 크게 현재 소비자들의 한옥에 대한 일반적 의식과 문헌 및 현장에 적용된 전통적 디자인 특성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조사하였다. 설문문항의 구성은 기존연구와 문헌 등에서 나타난 계획특성을 토대로 몇 차례의 회의와 예비조사를 통해 최종 도구로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은 충주 소재 4년제 1개교 생활과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 40명의 부모와 친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등 전국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설문지를 통한 무선표집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총 120부를 배포하여 112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109부(90.8%)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를 사용하였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은 빈도, 백분율, 평균을 통해 분석하였고, 변수들을 유형화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 ANOVA 분석, t-test 검증을 실시하였다.

2. 문현고찰

2.1. 전통한옥의 현대적 해석

전통 한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 되면서 대표적 한옥 마을인 북촌에 대해 재조명이 일고 있다. 북촌은 조선시대부터 상류계급이 거주하던 지역으로 서울의 유일한 전통한옥 밀집 지역으로 아직도 한옥의 유구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전통 가옥의 현대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자가 직접 방문하여 체험한 이들의 현 상황을 통해 전통한옥의 현대화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1) 안국동의 아름지기한옥

예전 윤보선 생가의 행랑체였던 곳을 우리문화 지킴이 단체인 ‘아름지기’가 매입하여 사무공간으로 개보수를 한 대지 33평에 건평 20평 남짓한 집이다. 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대청, 전통적 한옥안방의 내부공간을 그대로 보여 주는 듯한 안방, 가구배치는 현대적이나 한옥에 어울리게 배치한 사무공간과 부엌 겸 사용되는 부속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안마당을 통해 4계절과 날씨를 체험할 수 있어서 자연친화적인 열린 공간이라는 한옥의 좋은 점을 느낄 수 있다. 현대적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용적으로 설계된 내, 외부 화장실, 냉·난방기기가 갖추어진 다용도실 등은 20평의 한옥이 현대 생활공간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2) 쌍희재(雙喜齋)

가회동 31번지의 골목길에 있는 쌍희재는 대지 면적이 26평, 바닥면적은 15평에 불과하여 그 동네에서 가장 작은 집에 속한다. 그러나 도시형 한옥의 표준 평면인 ㄷ자형 한옥으로서 작지만 아름다운 비례미로 인해 질서와 편안한 품격이 느껴진다. 이 집의 또 다른 특성은 현대적 요소의 과감한 도입으로 주방이나 화장실 등은 집의 나머지 부분과 대조되는 선명한 현대식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전통과 현대와의 어우름을 통해 현대생활과 그에 맞는 공간과의 조화를 적절하게 구사하였다.

(3) 무무현(無無軒)

이집은 골목어귀의 코너에 위치하여 두번이 골목길을 향해 있어서 동향의 담장에 작은 살창을 통해 집안과 골목길이 서로 볼 수 있게 되어있다. 안방이나 다른 방에도 벽장이 있어서 살림살이를 수납하거나 감출 수 있어서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한옥의 특성인 여백의 미를 살린 개방감을 보여준다.

(4) 혜화동 사무소

전국 최초로 전통한옥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혜화동사무소는 대지 808.1m², 건평 247.7m²의 규모이다. 1940년에 지어진 기존한옥의 ㄷ자 구조에 화장실과 창고 등을 후면에 배치하기 위한 평지붕의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물 전면에 돌난간 등 석재 조각들이 있고 목재의 색이 짙어 신축한옥과는 달리 한옥의 구조와 분위기를 잘 유지하고 있다. 판공서 건물 특유의 답답하고 고답적인 콘크리트 외벽 대

신에 통 유리벽이 있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솔냄새, 흙냄새는 건물 안 사람들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해준다.

2.2. 한옥의 현대화를 위한 연구

다양한 한옥 공간 및 전통도안의 실내도입을 위해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한옥형 아파트 구상을 위한 아파트 공간의 사용상 문제점은 단위평면에서 외부 및 반 외부 공간의 부재, 매개공간과 반 사적공간의 부재 및 비효율적으로 큰 실내공간을 들었다¹⁾. 이에 반해 전통주택의 특성은 마루와 마당의 구조이며 채나눔, 진입공간이 있어서 열린 마당공간으로 진입하게 되고 실내는 마루와 방의 구조로 수납공간과 부분 복층이 있는 것이 특징으로 이러한 관계는 주택의 규모나 지역 및 시대와는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또한 우리 전통공간의 내부 공간적 특성은 공간의 가변성이다. 방과 마루의 조합은 필요에 따라 공간의 확대나 축소가 가능한 편리한 구조이며,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 마당이나 마루를 통해 합일하는 공간, 최소화한 내부 공간으로 공간을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공간특성을 가지며 충분한 수납공간으로 도장방, 고방, 반침 등이 제공된다. 그 외 부엌의 상부를 다락공간으로 사용하여 공간의 수직적 이용이 가능한 것을 한옥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²⁾. 그 외 전통주택의 특성은 가변성, 소박한 장식성, 시각적 개방성, 연속성, 영역성, 위계성, 인간중심성과 자연 친화성 및 전이성을 들 수 있다³⁾.

한옥 공간의 구성요소는 공간형태와 공간 조직을 가진 공간체계, 벽, 바닥, 천장의 물리적 구성요소 및 개구부로 연결되는 에워쌈의 체계, 동선체계, 재료체계, 가구체계, 빛과 조명, 색 및 조망과 내 외부 공간간의 관계를 내포하는 컨텍스트 등 총 7가지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⁴⁾. 또한 현대 아파트의 평면계획의 특성으로 거주자들의 선호가 방의 수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욕실의 수는 2개에서 3개로 증가하고 가족실의 중요성도 크게 인식되고 있다⁵⁾.

주거공간 계획시에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요소에 대한 선호 조사에서 자연 친화성이 74% 이상으로 가장 선호되었고 시각적 개방성, 인간 중심성 등이 각각 50% 이상의 선호를 보이며 가변성, 영역성, 전이성과 소박한 장식성,

연속성과 위계성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⁶⁾.

이러한 연구와 함께 업계에서도 옛 한옥의 느낌을 살린 전통 분위기의 아파트가 출현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를 한국형아파트라고 부르고 있다. 주로 의장적 측면에서 공급되는 사례가 많으며 최근에는 단지계획이나 주호평면계획 등에도 시도되고 있다.

1997년 S기업 주택부문에서 전통분위기를 연출하는 마감재를 사용하여 초기 분양률 100%의 실적을 거두었다⁷⁾. 이는 내부 마감재인 벽지, 타일, 마루, 등기구 등에 한옥에 사용되던 원자, 단청, 구름 등의 전통 문양을 넣어 실내 분위기를 우리 전통 문화의 느낌이 들도록 한 것이다.

아파트 평면에서 전통을 응용한 사례는 주로 마당, 마루의 적용이 가장 보편적이다. 한옥에서 마루는 상징적, 권위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다목적 생활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각 방의 진입을 위한 전실, 또는 복도의 공간이면서 누마루와 뒷마루와 같이 공간을 확장하는 기능을 겸한다. 현재 아파트 단위주호계획에서 전통을 응용한 계획은 안마루, 뒷마루, 누마루 등이 응용되어 계획되고 있다. 한옥에 있어서 마당은 매개적 공간으로 채와 채를 분할하며 동시에 채와 채를 연결하는 연속적인 동선체계를 가진다. 외부 공간인 안마당을 아파트에 적용할 경우 마당형 발코니, 내부마당 등으로 활용된다⁸⁾.

2010년 공급될 토지주택공사의 한옥형 아파트 계획에서는 한옥의 대표적 유형인 그자 및 드자 집을 기본으로 아파트 평면에 마당개념을 도입하여 전용면적 59m², 84m², 134m²의 세 종류 단위세대 평면을 개발하였다. 주거동의 외관은 한옥에 나타나는 기단, 벽체, 지붕의 조형 3분법을 도입하여 특화계획을 하였으며 특히 저층부는 돌기단을 형상화한 ‘가구식’과 화방벽을 형상화한 ‘벽식’, 골목길을 형상화한 ‘골목식’ 디자인을 개발하였다⁹⁾.

국토개발연구원(2008)은 신한옥의 연구 개발로 신한옥의 건축모델을 개발하여 한옥관련 기술의 첨단화 및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옥건축의 대중화, 저변 확대로 한옥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변화를 일으켜서 한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함과 더 나아가 한옥의 해외 진출을 통해 한류유행의 지속화 및 한류 건축의 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조사 결과 및 분석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 최시영, 앞의 책, pp.56~70

7) 이성연, 전통문양을 인테리어에 도입한 한국형 아파트, 건축 9707, 1997, pp.79~81

8) 임은영, 앞의 책, pp.9~16

9) 중앙일보, 2009, 3, 24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업, 소득수준,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 주택규모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각 범주별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응답자 성별은 여자가 55.3%로 남자 44.7%보다 다소 많았고, 연령은 20대 41.3%, 30, 40대 21.3%, 50-60대 37.3%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직업은 자영업 22%와 주부 23.9%, 학생 27.3%이 많았다. 소득도 200만 원미만이 24.6%, 2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이 25.4%, 400만원이상 600만원 미만이 26.8%, 600만원이상의 고소득이 23.2%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가 73.6%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이 13.9%를 차지하였다. 또한 거주하는 주택의 규모는 30평이상 40평미만이 39.9%, 40평이상 50평미만이 33.1%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표집된 대상자들은 연령과 소득수준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빈도(명) 및 백분율(%)
성별	남자: 67(44.7), 여자: 83(55.3)
연령	20대: 62(41.3), 30-40대: 32(21.3), 50-60대: 56(37.3)
교육정도	고졸: 49(32.7), 2년대졸: 6(4.0), 대졸: 75(50.0), 대학원이상: 20(13.3)
직업	자영업: 33(22.0), 전문직, 행정관리직: 19(12.6), 사무직: 21(13.9), 주부: 36(23.9), 학생: 41(27.3)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35(24.6), 200-400만원 미만: 36(25.4) 400-600만원 미만: 38(26.8), 600만원 이상: 21(13.2)
거주주택 유형	아파트: 109(73.6), 주상복합아파트: 4(2.7), 단독주택: 20(13.5), 연립/다가구 주택: 9(6.1), 오피스텔/ 원룸: 4(4.1)
주택 규모	30평미만: 27(18.2), 30-40평 미만: 59(39.9), 40-50평 미만: 49(33.1), 50평이상: 13(8.8)

3.2. 한옥의 일반적 인식

(1) 한옥의 일반적 인식

한옥을 보급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 동시대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한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잠재적 수요자들의 일반적 의식은 한옥의 전통 수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응답자들이 한옥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총 5가지 변수에 대해 설문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54%가 한옥에 대한 경험이 없었으며 46%가 한옥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50대 이상(73.2%)이 절대다수로서 3,40대(23%)나 20대(17.4%)와 비교하면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한옥이 서서히 사라졌고 짧은 충은 한옥을 경험할 기회를 점점 상실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가나 전문가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한옥의 인정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과반수이상(53.2%)이 한식기와지붕에 목조기둥과

보, 그리고 전통적인 온돌 바닥과 마루까지 포함해야 한식이라고 답하였으며, 두 번째는(32.1%) 내부구조는 현대식이라도 외관이 전통적 목조기둥과 보 및 한식기와지붕인 경우 한옥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은 한옥의 이미지를 기와지붕, 목조기둥 및 보, 온돌, 마루 등에서 강하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옥의 장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장점은 친환경적 재료(45%)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22%)과 고풍스러운 외관(21.1%)으로 나타났다. 한옥이 나무와 흙 등 친환경재료로 지은 건강주택이라는 개념이 소비자들의 의식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 한옥에 대한 일반적 인식

	한옥에 대한 일반적 인식	빈도(%)
한옥 경험	있다	69(46.0)
	없다	81(54.0)
한옥의 인정범위	현대식건물이라도 외관이 한옥 풍	15(13.8)
	현대식건물이라도 지붕이 한식기와면 한옥	1(0.9)
한옥의 장점	내부 현대식, 외관이 전통목조, 한식기와	35(32.1)
	한식기와, 목조, 전통온돌, 전통마루	58(53.2)
한옥이 이용되지 못하는 이유	고풍스러운 외관	23(21.1)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	24(22.0)
한옥에 거주를 원하는 연령	친환경적 재료	49(45.0)
	주변 환경과 어울림	10(9.2)
	여러 용도로 활용가능한 방	3(2.8)
	외관이 시대에 뒤떨어져	1(0.9)
	잘 알지 못해서	19(17.4)
	재산가치가 떨어져	4(3.7)
	구입, 유지관리가 비싸서	40(36.7)
	현대적 생활이 불편해서	45(41.3)
	20-40대 연령	21(12.8)
	50대 이후	56(57.8)
	거주의사가 없음	32(29.4)

한옥이 이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현대적 생활이 불편해서(41.7%), 구입 및 유지관리가 비싸서(36.7%)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기존 한옥이 가지고 있는 취사, 화장실 등의 설비, 좌식 등이 현대 생활양식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편리성을 도모한 개선된 한옥이 필요하다. 또한 목조로 이루어진 한옥의 단가를 좀 더 낮추고 정부의 각종 지원을 통하여 저렴하고 대중적인 한옥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향후 한옥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70.6%에 해당되어 한옥의 활성화 여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한옥의 거주 희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20-40대보다는 50대 이후(57.8%)에 더 한옥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후주택으로 한옥의 특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생활양식이 다양화하는 시대변화에 맞추어 젊은 세대들에게도 각광받는 주거유형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자연 친화적, 생활 편리성 등의 한옥적 특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선호하는 한옥형 주거 형상

전통성을 계승하면서 현대생활에 적합한 주택을 계획하기 위해 응답자들이 거주하기를 선호하는 한옥형 주택의 구체적 형상은 어떠한 것인지 조사하였다<표 3>.

<표 3> 선호 한옥형 주거형상

한옥형 주거		빈도(%)
선호거주유형	원형을 재현한 전통 한옥	16(10.7)
	현대식으로 개조한 현대 한옥	89(59.3)
	한옥의 특성이 내재된 공동주택	30(20.0)
	한옥의 특성이 내재된 단독주택	15(10.0)
공동주택의 형태	빌라형 연립주택	73(48.7)
	5층 미만의 저층 아파트	41(27.3)
	5~20층 미만의 일반 아파트	23(15.3)
	2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13(8.7)
위치	도시 중심부	5(3.3)
	도시 내부	23(15.3)
	도시 근교	87(58.3)
	전원/농어촌	22(14.7)
위치선정시 고려점	위치는 상관 없음	13(8.7)
	주변 자연환경이 폐적한 곳	32(29.4)
	대중 교통이 편리한 곳	29(26.6)
	상업,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한 곳	14(12.8)
	직장, 학교 등과 가까운 곳	12(11.0)

전통적 기법을 최대한 고수하여 재현된 전통한옥(10.7%)이나 한옥의 특성이 내재된 단독주택(10.0%)보다는 현대식으로 개조하여 현대생활에 맞게 바뀐 현대 한옥(59.3%)이나 한옥의 특성이 내재된 공동주택(20%)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한옥의 개발방향을 시사한다.

한옥이 공동주택으로 지어진다면 그 형태로는 빌라형 연립주택(48.7%)을 가장 좋아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5층 미만의 저층 아파트(27.3%)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위치는 도시 중심부(3.3%)나 내부(15.3%)보다는 도시근교(58.3%)에 대한 선호도가 커으며 예측과는 달리 전원이나 농어촌(14.7%)에 대한 선호도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위치 선정시에는 주변 자연환경이 폐적한 곳(29.4%)을 가장 희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26.6%)을 희망하였다. 한옥의 보급에 있어 그 형태와 장소성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주택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건립하느냐에 따라 건축비와 활용성, 보급율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향후 개발되어지는 한옥형, 전통형의 주택은 자연환경과 교통이 편리한 도시근교에 위치하는 저층 또는 5층 미만의 연립이나 아파트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한옥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

전통 한옥의 공간적 개념과 특징은 주로 유형학적 접

근방법에 의해 몇 개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적 공간개념에 대한 논의는 다소 표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부분 그 기본 맥락에 있어서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 나타나는 전통 한옥의 공간적 개념을 가변성, 공간의 이중성, 효율성, 채분리, 마당을 통한 진입, 전이적 공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속하는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표 4>.

<표 4> 전통 한옥의 공간적 개념

공간적 개념		빈도(%)
가변성	한옥은 방의 옆이나 앞에 마루가 있어서 공간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또한 방 사이에 미닫이 문으로 필요할 때는 문을 열거나, 떼어내서 두 방을 하나로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특성	39(26.0)
	외부 공간을 내부 공간같이, 내부 공간을 외부 공간 같이 사용하는 특성. 즉 한옥 마당은 외부 공간이지만 방에서 와 같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방은 안에 있지만 문을 앉, 뒤로 열 수 있어서 방에 있어도 밖에 있는 것처럼 헛별과 맑은 공기를 접할 수 있는 특성	21(14.0)
이중성	한옥의 방들은 예를 들면 만방과 같이 한 공간을 여러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집 전체면적은 작아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특성	22(14.7)
	한옥은 사랑채와 안채, 별채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방을 사용할 때 각 방에서의 활동이 다른 방에 지장을 주지 않고 방과 방 사이의 동선이 길어서 여유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특성	14(9.3)
채분리	한옥은 마당을 통해 각 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채에서 안채로 가려면 마당을 통해 가야 하므로 그 사이 바람도 쏴고 하늘도 볼 수 있는 현재의 아파트 평면에 비해 매우 개방적인 특성	25(16.7)
	연결된 공간의 과정적 공간을 형성하여 완충, 원화, 매개 역할을 하는 경우, 연결된 공간의 크기를 달리하여 리듬과 질서가 느껴지게 하는 특성	29(19.3)
마당을 통한 진입	연결된 공간의 과정적 공간을 형성하여 완충, 원화, 매개 역할을 하는 경우, 연결된 공간의 크기를 달리하여 리듬과 질서가 느껴지게 하는 특성	29(19.3)
전이적 공간	연결된 공간의 과정적 공간을 형성하여 완충, 원화, 매개 역할을 하는 경우, 연결된 공간의 크기를 달리하여 리듬과 질서가 느껴지게 하는 특성	29(19.3)

분석결과 현재 아파트 공간에서 가장 충족되지 못하는 요소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필요에 따라 공간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가변성에 대한 선호도(26%)가 가장 높았다. 이는 아파트 공간이 폐쇄, 고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생활상의 불편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공간을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개방성과 활용성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 전이적 공간(19.3%) 역시 현대 주택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공간적 특성으로 완충과 매개의 역할을 하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개방적인 마당을 통한 진입(16.7%), 한 공간을 여러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옥의 전형적인 특징인 채분리(9.3%)는 그 선호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미 현대주택에서 개설의 프라이버시와 영역성이 보호되도록 계획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선만 길어진 것으로 이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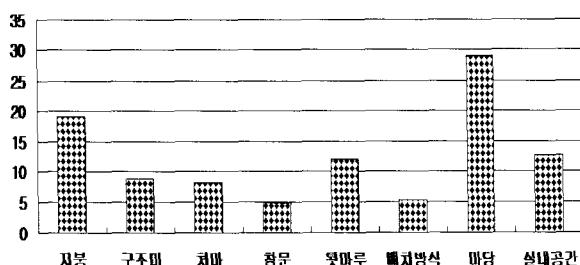
한옥의 외형을 특징짓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8개의 범주로 나누어 그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마당이 39.3%로 가장 선호되었으며 그 다음 기와지

봉이 20.3%의 선호도를 나타냈다. 반면 반투명 창문(2.0%)과 채분리의 배치방식(4.0%)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옥의 외형적인 요소에 대해 가장 선호하는 것의 순위를 3순위까지 조사하여, 1순위에 3배, 2순위에 2배, 3순위에 1배의 순위별 가중치를 두어 다시 평균을 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역시 마당(29.1%)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붕(20.7%)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 전통 한옥의 외형적인 요소

한옥의 외형적인 요소	빈도(%)
부드러운 곡선의 한국적인 기와지붕	31(20.7)
서까래, 대들보, 기둥 등의 노출로 생기는 구조미	14(9.3)
여름의 일사를 가려주는 깊은 처마	12(8.0)
커튼이 필요 없는 창호지를 바른 반투명의 창문	3(2.0)
앞에 걸터 앉을 수 있는 뒷마루	14(9.3)
안채, 사랑채 등으로 나뉘는 배치방식	6(4.0)
대문에서 집까지의 넓은 마당	59(39.3)
안방, 건넌방, 대청 등의 구성으로 시원한 실내공간	11(7.3)



<그림 1> 한옥의 외형적인 요소에 대한 누적 선호도

위의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소비자가 생각하는 한옥의 중심단어는 마당과 기와지붕이며 마당은 특히 개방적, 전이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여 주며 이는 향후 전통성을 살린 한옥형 주택의 주요한 설계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응답자 특성에 따른 한옥의 디자인

응답자들의 성별, 연령에 따라 디자인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표 6>.

여성은 가변성(30.1%)을, 남성은 전이적 공간(26.9%)을 가장 선호하였다. 두 번째 선호에서 남성은 가변성과 마당진입(각 20.9%)에 대한 선호도가 커었으나 여성은 마당진입에 낮은 선호를 나타냈으며 오히려 남성의 선호도가 낮았던 공간의 이중성(20.5%)이나 효율성(19.3%)에 대한 선호가 커졌다. 이는 주로 남성이 공간과 공간 사이의 연결성을 중시하며 여성은 공간 그 자체의 효율성과 이중성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여성은 뒷마루(24.4%)나 곡선적인 기와지붕(20.7%)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커으며 남성은 마당(33.3%)에 대한 선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은 아득

하고 섬세한 부분에 선호를 나타내는 반면 남성은 공간적인 면에 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성별에 따라 다른 조형감각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각 연령별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30대와 40대가 가장 마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3.8%),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기와지붕(22.6%)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0대와 6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뒷마루(17.9%)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응답자 특성에 따른 전통 한옥의 디자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20대	30~40대	50~60대
가변성	14(20.9)	25(30.1)	0	7(21.9)	8(14.3)
공간의 이중성	4(6.0)	17(20.5)	15(24.2)	4(12.5)	11(19.6)
효율성	6(9.0)	16(19.3)	7(11.3)	11(34.4)	10(17.9)
채분리	11(16.4)	3(3.6)	15(24.2)	0	6(10.7)
마당 진입	14(20.9)	11(13.3)	4(6.5)	7(21.9)	8(14.3)
전이적 공간	18(26.9)	11(13.3)	12(19.4)	3(9.4)	13(23.2)
$\chi^2 = 20.84^{***}$		$\chi^2 = 24.16^{**}$			
기와 지붕	7(10.6)	17(20.7)	14(22.6)	6(18.8)	11(19.6)
구조미	2(3.0)	8(9.8)	5(8.1)	1(3.1)	8(14.3)
처마	3(4.5)	8(9.8)	7(11.3)	1(3.1)	4(7.1)
뒷마루	7(10.6)	20(24.4)	2(3.2)	2(6.3)	10(17.9)
마당	22(33.3)	12(14.6)	26(41.9)	14(43.8)	19(33.9)
$\chi^2 = 24.33^{***}$		$\chi^2 = 23.95^{*}$			

* P<.05, **P<.01, ***P<.001

3.3. 한옥형 아파트 특성에 대한 선호

(1) 한옥형 아파트의 특성

현재 아파트에 적용 가능한 전통주택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학위논문, 건축전문잡지, 학회지논문 등의 문헌뿐만 아니라 실제 현재 아파트에 적용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전통적 특성의 구체적 표현사례를 선정하여 각 항목의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5점 리커트 척도에서 4.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준 항목들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또한 이들 항목들은 유형화하기 위해 주인자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은 배리맥스 접근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아이겐 값 1.0을 기준으로 6개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각 요인의 적재량 중 설명력이 낮은 것(40 이하)를 제외하고 추출된 요인들의 구성 항목과 요인적재량은 <표 7>과 같다. 추출된 요인 6개의 총 분산은 59.48%이다.

요인 1은 가장 설명력이 높으며(분산은 11.78%) 각 특성들이 외부로의 조망과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조망성이 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넓어 보이는 공간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개방성, 요인 3은 재료, 색채, 디자인, 마감 처리 등과 관련되어 장식성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외 4 요인은 기능성, 5요인은 공간의 리듬과 변화를 나타내므로 리듬감, 6요인은 공간의 전이성으로 대표되어 전이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들을 살펴보면 한옥의 장점인 특성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며 그 비중이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어야 할지를 보여준다.

이들 중 4.0이상의 높은 평균점을 보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1순위로는 집안에 안마당이 있어 시각적, 심리적으로 넓은 개방감을 느낀다(4.45점)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안마당은 개방적 통로공간을 형성하는 곳으로 폐쇄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와 연관되어 안방과 거실 사이에 미닫이 문이나 접이식 문을 설치하여 필요시 공간을 넓게 사용한다(4.01)도 높게 나타나 소비자들이 가변성이나 개방성에 대한 요구가 큼을 알 수 있다.

<표 7> 한옥형 아파트 특성에 대한 선호와 요인분석 결과

요인 (분산%)	구성항목	요인 적재량	평균
1요인 조망성 (11.782)	마루의 문을 들어열기 형식으로 하여 마당을 향해 열 수 있다	.708	3.78
	주택은 역시 조망보다 향이 좋아야 한다	.664	3.34
	전통한옥 우물마루를 만든다	.514	3.88
2요인 개방성 (10.679)	집안에 안마당이 있어서 시각적, 심리적으로 넓은 개방감과 자연환경을 느끼게 한다	.409	4.45
	안방과 거실 사이 벽에 미닫이 문 또는 접이식 문을 설치하여 필요할 때 열어 공간을 넓게 사용한다	.802	4.01
	하나의 방을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작은 집도 크게 사용할 수 있다	.521	3.66
3요인 장식성 (10.292)	출입구에서 현관 사이에 마당형 발코니를 설치한다	.472	4.16
	한옥의 방은 가구를 최소화 하여 좁은 공간도 넓게 보인다. 이를 적용하여 방의 한편에 벽장을 설치하여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TV와 음향기기 등을 넣고 미닫이문으로 가린다	.470	4.07
	실내에 사용하는 색채에 한국적 오방색 분위기를 많이 사용한다(적, 청, 흑, 노랑, 백색)	.713	3.38
4요인 기능성 (10.228)	현관문은 기존의 철문으로 하고 내부에서 보는 면은 전통문양을 살린 목재 문을 덧붙여 한옥 분위기로 마감처리한다	.646	3.47
	실내 마감재료는 모두 목재, 황토, 종이와 같은 친환경적 자연소재를 활용한다	.576	4.39
	외부 현관문(밖에서 보이는 쪽)을 한옥 대문양식으로 디자인한다	.514	3.68
5요인 리듬감 (8.768)	사적인 공간일수록 현관에서 멀리 배치한다	.721	4.29
	거실의 일부 바닥을 높여서 부분적으로 바닥 차이가 나는 마루(누마루)를 설치한다	.620	3.41
	마당으로 면한 방의 외부에 뒷마루를 설치한다	.560	3.71
6요인 전이성 (7.735)	한옥의 한지 도배벽과 같이 벽면은 장식성을 배제하고 될수록 단순하고 깨끗하게 처리한다	.540	4.10
	공간의 리듬감을 주기 위해 거실과 방의 천장 높이를 달리하여 거실 천장은 높게, 방의 천장은 낮게 한다	.668	3.34
	방의 규모는 인체최수에 맞는 아늑한 크기가 좋다	.637	3.38
	햇빛과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창이나 문은 한식 문 창살에 창호지를 밟아 반투명성을 살린다	.621	3.58
	창문 외부의 윗 틀에 처마를 설치하여 햇빛을 조절하고 비를 때도 창문을 열 수 있게 한다	.475	4.20
	아파트 단지는 되도록 자연지형을 보존한다	.714	4.05
	외기에 접하는 면적을 넓혀서 채광 및 환기, 통풍에 유리한 구조가 좋다	.571	4.25
	외부에서 현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주방으로 통하는 별도의 출입구가 있다	.520	3.56
	공간의 깊이를 더하고 연결감을 주기 위해 하나의 큰방보다 여러 개의 작은 방으로 연결한다	.478	3.36

그 다음 친환경적 소재를 활용한다(4.39), 외기에 접하는 면적을 넓혀서 채광, 환기, 통풍에 유리한 구조가 좋다(4.2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창문 외부 윗틀에 처마를 설치해 햇빛을 조절하고 비를 때 창문을 열 수 있게 한다(4.20), 아파트 단지는 되도록 자연지형을 보존한다(4.05)도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이는 요즘 웰빙에 대

한 관심과 더불어 한옥의 자연친화적이고 건강지향적인 요소가 맞물려 높은 선호도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출입구와 현관사이에 마당형 발코니를 설치한다(4.16), 한지 도배벽과 같이 벽면은 장식성을 배제하고 될수록 단순하고 깨끗하게 처리한다(4.10), 방의 한편에 벽장을 설치하고 미닫이 문을 단다(4.07)도 선호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현대 주거공간 중요한 전망과 개방감이 한옥형 아파트 선호에서도 가장 비중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한옥의 특성을 살린 한국적 장식성, 기능성, 리듬감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에 따른 한옥형 아파트 특성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규모를 30평 미만, 30평이상 40평미만, 40평이상 50평미만, 50평이상으로 나누어 한옥형 주택특성과 비교한 결과<표 8> 평수가 클수록 공간의 사용과 관련된 미닫이 문을 통한 공간 확장이나 바닥 일부를 높여 부분 활용하는 누마루에 대한 요구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평수가 낮을수록 한옥형 담장이나 처마 등 장식적인 측면에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주택규모에 따른 한옥형 주택특성

한옥형 주택특성	주택규모	평균 D	한옥형 주택특성	주택규모	평균 D		
안방과 거실사이 미닫이문을 설치하여 필요할 때 열어 공간을 넓게 사용한다.	30평미만	3.63	a	외부 창틀에 처마를 설치하여 빛을 조절하고 비울때도 문을 열 수 있게 한다.	30평미만	4.37	a
	40평미만	3.70	a	40평미만	4.10	ab	
	50평미만	3.98	ab	50평미만	4.38	a	
	50평이상	4.38	b	50평이상	3.84	b	
	F	2.846*		F	3.044*		
통유리보다 발코니 난간을 한옥형 담장으로 처리한다.	30평미만	4.14	a	부분적으로 바닥의 일부를 높인 누마루를 설치한다.	30평미만	3.84	a
	40평미만	3.55	b	40평미만	4.10	a	
	50평미만	3.65	b	50평미만	4.37	b	
	50평이상	3.38	b	50평이상	4.38	b	
	F	2.886*		F	2.786*		

* P<.05, **P<.01, ***P<.001

Duncan Test 결과: 같은 문자로 표시된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음

<표 9> 직업에 따른 한옥형 주택특성

주택특성	직업	평균 D	주택특성	직업	평균 D		
사랑채와 같이 마당 건너서 별채로 나누어진 방과 목실이 있다	자영업	3.93	a	사적인 공간일수록 현관에서 멀리 배치한다	자영업	4.09	a
	전문, 행정직	4.00	a	전문, 행정직	4.52	b	
	사무, 기능직	3.28	b	사무, 기능직	4.04	a	
	주부	3.44	b	주부	4.50	b	
	F	2.894*		F	3.495*		
통유리보다 발코니 난간을 한옥형 담장으로 처리한다.	자영업	3.93	a	현관문 내부에 전통문양을 살린 목재문을 덧붙여 한옥 분위기를 낸다	자영업	3.48	a
	전문, 행정직	3.11	b	전문, 행정직	2.55	b	
	사무, 기능직	3.85	a	사무, 기능직	3.71	a	
	주부	3.50	a	주부	3.72	a	
	F	3.385*		F	3.845***		
부분적으로 바닥의 일부를 높인 누마루를 설치한다	자영업	3.57	a	마당으로 면한 방의 뒷마루를 설치한다	자영업	4.06	a
	전문, 행정직	2.50	b	전문, 행정직	2.94	b	
	사무, 기능직	3.61	a	사무, 기능직	3.76	a	
	주부	3.63	a	주부	4.08	a	
	F	4.032**		F	7.074***		
아파트는 되도록 자연지형을 보존한다	자영업	4.12	a	출입구에서 현관사이에 마당형 발코니를 설치한다	자영업	4.27	a
	전문, 행정직	3.33	c	전문, 행정직	3.11	b	
	사무, 기능직	3.80	b	사무, 기능직	4.19	a	
	주부	4.38	a	주부	4.52	a	
	F	7.330***		F	11.368***		

* P<.05, **P<.01, ***P<.001

Duncan Test 결과: 같은 문자로 표시된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음

직업은 자영업, 전문직과 행정관리직, 사무직과 임시직, 주부로 나누어 한옥의 주택특성들과 분석하였는데 <표 9>, 전문직, 행정관리직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한옥형 주택특성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인 영역의 프라이버시 확보와 관련된 생활공간과 떨어진 독립된 별채형성을 원한다는 문항과 사적인 공간일수록 현관에서 멀리 배치한다는 문항에서는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나, 다른 한옥형 주택 특성에 대해서는 타 직종에 비해 가장 낮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3) 마루, 마당 공간의 선호

아파트 평면에서 전통을 응용한 사례는 주로 마당, 마루의 적용이 가장 보편적이다.

마루에 대한 선호 조사로서 기존의 아파트 평면 발코니 부분에 마루를 깔고 발코니와 방, 발코니와 거실 사이에 미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를 퇴마루형, 방이나 거실 일부에 단이 높은 마루공간을 형성하여 수직적으로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를 누마루형, 거실바닥에 우물마루를 깔아 공간을 활용한 경우를 대청마루형으로 나누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한옥형 마루 선호

한옥형 마루		빈도(%)
마루 유형	퇴마루형	41(27.5)
	누마루형	24(16.1)
	대청마루형	75(50.3)
	원하지 않음	9(6.0)
설치 반대 이유	좌식생활을 해서 불편하므로	2(9.6)
	마루는 거실과 유사한 공간이므로	11(52.4)
	우물 마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8(38.0)
마루 활용	거실과 별도로 필요시 거실의 확장 공간으로	86(57.3)
	거실과 별도로 입식가구를 놓아 가족실로	32(21.3)
	거실은 없고 마루를 좌식 거실로	24(16.0)
	거실은 없고 마루를 입식 거실로	8(5.3)

응답자의 94%가 마루공간에 대한 선호를 나타냈으며 50%가 대청마루형을 28%가 퇴마루형을, 16%가 누마루형을 원하였다. 설치를 반대한 경우는 마루와 거실이 유사한 공간이기 때문(52.4%)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우물마루에 대한 거부감도 38%나 되었다.

현대식으로 적용된 마루의 기능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조사한 결과 과반수 이상(57.3%)이 거실과 별도로 마루를 설치하여 필요시에는 거실의 확장 공간으로 넓게 사용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마루에 입식가구를 놓아 가족실로 사용하기(21.3%)도 희망하였으며 거실 없이 마루를 거실로 이용하고 좌식으로 사용하기(16%)는 비교적 낮은 선호를 보였다.

마당에 대한 선호조사는 응답자들에게 별채마당형과 대청마루형의 사례와 평면을 비교하여 선택하게 한 결과 <표 11>, 마루형(56%)을 별채마당형(36%)보다 더 선호

하였다. 이때 별채마당형은 채와 채의 분리기능을 살려 생활공간과 분리되고 안마당을 통해 갈 수 있는 별채(방 앞의 퇴마루, 방과 화장실로 구성)가 있는 마당형을 의미한다.

<표 11> 한옥형 마당 선호

한옥형 마당		빈도(%)
마당 유형	별채 마당형	54(36.2)
	마루형	84(56.4)
	마루나 마당을 원치 않음	11(7.4)
	실내정원	51(34.0)
마당 활용	열린 공간으로 개방감	58(38.7)
	작업마당	23(15.3)
	방공간을 더 추가하길 원함	18(12.0)
	3~5평 정도	56(37.6)
마당 면적	5~8평 정도	57(38.3)
	8평 이상	36(24.1)

만약 마당을 아파트공간에 설치한다면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겠는지 물어본 결과 38.7%가 열린 공간으로 개방감을 강조하였고 34%는 실내정원으로의 활용을 원하였 다. 원하는 면적은 5~8평 정도가 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3~5평 정도 규모가 34%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당보다는 마루에 대한 선호가 훨씬 더 컸으며 마루는 거실의 확장기능을, 마당은 열린 개방된 공간으로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논의 되었던 공간적 개념의 가변성에 대한 선호도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소비자들은 마루 공간에 가변성을 부여하여 필요시 다른 공간과 확장, 축소를 시도하는 것을 원한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마당은 매개공간으로 각 공간의 완충적 역할을 하는 열린 개방적 공간으로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미닫이문 설치를 원하는 장소와 좌식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공간, 그리고 전통 벽장이 설치되기를 원하는 공간을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한옥의 기타공간

기타 공간		빈도(%)
(중복응답)	부엌과 거실사이	89(59.3)
	거실과 방사이	23(15.3)
	방과 방사이	18(12.0)
	방과 발코니 사이	48(32.0)
좌식 공간	노인침실	100(66.7)
	취미 및 여가공간	90(60.0)
	식사실	61(40.7)
벽장	부부침실	38(25.3)
	부부침실	56(37.8)
	아동침실	26(17.6)
벽장	식사실	19(12.8)
	거실	47(31.8)

미닫이 문은 기존의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게 부엌과 거실사이(59.3%)와, 방과 발코니 사이(32%)에 설치하기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내 생활공간 중 좌식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공간은 노인침실(66.7%), 취미 및 여가공간(60%), 식사실(40.7%),

부부침실(25.3%)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닫이 문을 달고 한자리 도배한 전통 벽장이 아파트에 응용된 사례를 제시하고 현대 주거공간에 설치를 원하는 곳을 선택하게 한 결과 부부침실(37.8%)과 거실(31.8%)에서 요구도가 있었다.

(4) 응답자 특성에 따른 마루, 마당 공간의 선호

응답자 특성에 따라 마루공간에 대한 선호를 분석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표 13>. 대청마루에 대한 선호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대청마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다음 선호형으로 20대는 누마루형을 30대 이상에서는 뒷마루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루의 활용면에서도 모든 연령대에서 거실과 별도로 마루를 설치하여 필요시 거실의 확장 공간으로 넓게 사용하기를 희망하였으나, 그 다음 순으로 20대는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거실은 없고 마루를 좌식 거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29%였으며, 50-60대인 경우는 거실과 별도로 마루를 설치하여 입식가구들을 놓고 가족실로 사용하기를 희망하였다. 젊은 층이 마루의 좌식활용을, 노년층이 입식활용을 원한 것으로 일반적인 예측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표 13> 응답자 특성에 따른 한옥 마루의 선호

한옥형 마루	연령			소득			
	20대	30~40대	50~60대	200만	400만	600만	600이상
마루 유형	뒷마루	17(27.9)	6(18.8)	18(32.1)	10(29.4)	15(41.7)	11(28.9)
	누마루	19(31.1)	31(9.4)	2(3.6)	10(29.4)	7(19.4)	3(7.9)
	대청마루	21(34.4)	22(68.8)	32(57.1)	11(32.4)	14(38.9)	23(60.5)
	필요없음	4(6.6)	1(3.1)	4(7.1)	3(8.8)	0	1(2.6)
$\chi^2 = 22.59^{**}$				$\chi^2 = 30.214^{***}$			
마루 활용	거실확장	29(46.8)	25(78.1)	32(57.1)	12(35.3)	17(47.2)	24(63.2)
	가족실로	13(21.0)	4(12.5)	15(26.8)	9(26.5)	15(41.7)	4(10.5)
	좌식마루로	18(29.0)	2(6.3)	4(7.1)	13(38.2)	2(5.6)	5(13.2)
	입식마루로	2(3.2)	1(3.1)	5(8.9)	0	2(5.6)	5(13.2)
$\chi^2 = 18.96^{**}$				$\chi^2 = 40.331^{***}$			

* P<.05, **P<.01, ***P<.001

응답자특성에 따른 마당공간 선호를 분석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표 14>와 같다.

<표 14> 응답자 특성에 따른 한옥 마당의 선호

한옥형 마당	성별		직업				
	남자	여자	자영업	전문직	사무직	주부	
마당 유형	별채마당형	32(47.8)	22(26.8)	17(51.5)	6(33.3)	10(47.6)	
	마루형	29(43.3)	55(67.1)	16(48.5)	6(33.3)	11(52.4)	
	원치 않음	6(9.0)	5(6.1)	0	6(33.3)	0	
			$\chi^2 = 8.567^{*}$		$\chi^2 = 28.68^{***}$		
마당 활용	실내정원	15(22.4)	36(43.4)	10(30.0)	5(27.8)	5(23.8)	
	열린공간	28(41.8)	30(36.1)	17(51.5)	2(11.1)	9(42.9)	
	작업마당	11(16.4)	12(14.5)	3(9.1)	2(11.1)	6(28.6)	
	방추가	13(19.4)	5(6.0)	3(9.1)	9(50.0)	7(19.4)	
$\chi^2 = 10.73^{*}$				$\chi^2 = 38.73^{***}$			

* P<.05, **P<.01, ***P<.001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별채마당형(47.8%)을, 여자는 마루형(67.1%)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

당의 활용면에서도 남자는 개방된 열린 공간(41.8%)으로서의 활용을 원하였으며 여자는 실내정원(43.4%)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하였다. 직업에 따라서는 주부들의 마루형 선호(65.7%)가 타직업보다 커졌으며, 마당의 활용은 자영업(51.5%)과 사무기능직(42.9%)은 열린공간, 전문직은 마당보다는 방 공간을 하나 더 추가(50%), 주부는 실내정원(47.2%)으로서의 활용을 원하였다.

(5) 한옥형 아파트에 대한 일반 사항

한옥형 아파트에서 가족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6%가 50-59평 정도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표 15>. 이는 국민주택규모 25.7평과 비교해 본다면 훨씬 큰 평수로 한옥의 안마당과 마루 공간 등 다양한 배치방식과 개방성 등으로 인해 넓은 면적이 필요함을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응답자들이 한옥형 아파트를 구매하기를 원한다면 일반아파트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격까지 구매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47%가 일반분양가의 10-20%이내의 범위 내에서 구매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 다음 일반 분양가의 10%이내가 29.3%였으며, 일반 분양가의 20%이상이 되면 구매의사가 14% 정도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표 15> 한옥형 주택의 일반 사항

일반 사항		빈도(%)
한옥 면적	30-39평	18(12.0)
	40-49평	32(21.3)
	50-59평	54(36.0)
	60-69평	45(30.0)
구매 의사	일반아파트 분양가의 10%이내	44(29.3)
	일반아파트 분양가의 10-20%이내	71(47.3)
	일반아파트 분양가의 20-30%이내	21(14.0)
	구매의사 없다	14(9.3)

2012년 입주 예정인 대한주택공사의 한옥형 아파트의 경우 비용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진다고 한다. 한옥형 아파트는 소재 면에서 목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목재로 사용할 경우 비용이 커져서 절반은 콘크리트 시공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목재 가공도 기계식을 적극 도입하고 조립부 철물을 보강해 비용을 낮춘다는 계획이다¹⁰⁾. 따라서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가격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옥 소재의 규격화, 표준화와 건축법 등 각종 제도의 개선, 관련 인력 양성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4. 결론

우리의 건축 역사를 살펴보면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10) 한겨레 신문, 2009, 5, 20

서구적 디자인의 외형적, 감각적 경향에 치우쳐 전통적 혹은 한국적인 디자인 경향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였다. 주택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통적 한옥은 서구식 개념의 주택에 밀려 점차 사라지고 획일화된 아파트가 우리의 대표적인 주택이 되어버렸다.

최근 정부를 비롯한 토지주택공사나 국토개발원에서의 한옥 문화 세계화를 위한 노력들은 정형화된 아파트 공간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주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적이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이나 색채가 담겨져 있는 우리의 주택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

한옥형 아파트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주로 계획가와 디자이너 입장에서 적용 가능한 전통성에 대한 계획 요소들의 추출이었다면, 본 연구는 향후 잠재적 수요자들의 한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그 선호도를 조사하여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한옥의 계획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옥의 일반적 인식은 응답자의 70%가 한옥에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만큼 매우 긍정적이었다. 단지 한옥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대적 생활이 불편하며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었다.

좁은 범위에서 한옥을 규정한다면, 외형뿐만 아니라 건설의 기법이나 재료에 있어서도 전통의 것을 이어가는 건축으로 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위해 전통적 형태와 현대적 편리성을 갖춘 주택을 개발하다면 소비자들이 한옥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던 친환경적,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갖춘 우리의 주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옥의 보급에 있어 그 형태와 장소성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주택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건립하느냐에 따라 건축비와 활용성, 보급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한옥형, 전통형의 주택은 자연환경과 교통이 편리한 도시근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층 또는 5층 미만의 연립이나 아파트의 형태였다.

셋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적용 가능한 전통적 특징은 조망성, 개방성, 장식성, 기능성 및 리듬감과 전이성이었다. 이는 현재 폐쇄적인 아파트 공간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가장 선호하는 특성이 조망성과 개방성인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전통적 공간배치 방식에 대해 확장과 축소가 가능한 대청마루의 가변성과 완충과 매개의 역할을 하는 안마당의 개방성을 가장 원하였다.

현대주택으로의 변화과정에서 마루가 사라지고 거실이 생겨났으며, 거실은 가족의 중심공간으로 거실을 중심으로 가족 간의 활동 반경이 무수히 겹쳐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부분적으로 세대 간의 분리와 통합

을 원하게 되었으며 전통적 대청마루 공간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한옥형 아파트의 특성으로 가장 먼저 안마당의 도입, 개방성과 가변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와 자연친화적이고 건강지향적인 특성을 재료와 평면 및 구조에서 어떻게 재현 할 것인지가 한옥형 주택의 활성화에 가장 큰 구심점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더불어서 앞서 결과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한옥은 목재 주택으로 일반인들에게 비싸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한옥의 보급이나 현대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의 목조주택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그린홈 건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둥재료가 되는 소나무 등 조림목의 조림도 확대하고 목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정밀가공 재재시설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일본의 전통 주택도 목재 주택이나 정밀 제재 가공소의 기능으로 활성화 되어있다. 철근 콘크리트의 건축자재 대신 목재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전통한옥을 현대화한 한국형 목조 주택 및 아파트를 개발하여 친환경적 삶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때마침 세계적인 친환경적 생활 경쟁시대에 이를 통해 국민적 인식과 지속적인 관심을 도출해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 국토개발연구원, 한옥건축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기반 구축 기반 연구, 2008
- 김자민, 지속가능한 '한옥'개발 및 보급을 위한 수요자 의식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 23권, 2007
- 손승광, 전통한옥의 도시집합주거로 발전 가능성 연구, 한국주거 학회논문집 제 19권 3호, 2008
- 안경은, 전통주거공간 분석을 통한 한국형 아파트개발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유영희, 실내건축공간에 '한국성' 적용을 위한 디자인 개념 추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 14권 5호, 2005
- 임은영, 전통주택의 계획요소를 용용한 아파트 단위 평면 계획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장미선 외, 전통주택의 특성에 대한 아파트 거주자의 선호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 16권 1호, 2007
- 전봉희, 한옥의 브랜드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적 연구, 국학 연구, 제 8집, —
- 최상현, 전통성, 한국성 그리고 한국 현대 실내디자인, 건축 0109, 2001
- 이성연, 전통문화를 인테리어에 도입한 한국형 아파트, 건축 9707, 1997
- 이숙경 외, 한국 현대 실내건축디자인의 한국성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 14권 2호, 2005
- 이주혜, 현대 실내디자인에 나타나는 한국성의 공간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 34호, 2002
- 최시영, 거주자 선호분석에 의한 공동주택의 한국성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2009

[논문접수 : 2009. 12. 31]

[1차 심사 : 2010. 01. 21]

[제재 확정 : 2010. 02. 05]